

LS산전, 전력용 반도체모듈 생산

국책과제 통해 기술력 확보 ... 2015년 매출목표 1900억원 달성

LS산전은 4월27일 천안공장에서 구자균 사장과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력용 반도체 모듈의 출시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구자균 사장은 “전력용 반도체 모듈을 처음 출시한 것은 전력IT 국책과제를 통해 확보된 기술을 상품화함은 물론 국내 최초로 전력용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LS산전은 미쓰비시와 인피니언 등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지배하는 전력용 반도체 모듈 시장에서 2015년 1900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LS산전은 2005년부터 약 120억여원을 투자해 전력용 반도체 모듈 기술 및 제품을 확보했으며 2010년까지 인버터 등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LS산전 관계자는 “전력용 반도체 모듈은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의 에너지절감에 사용되는 인버터의 핵심부품”이라며 “주력사업인 인버터와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자동차용, 신·재생 에너지용, 가전용 전력용에 이르기까지 제품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7>